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10주일 2016.6.5.(다해) 제2001호



삼덕성당 성모자상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 법적 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던 가난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한 희망인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께 의탁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1열왕 17,17-24

제2독서 갈라 1,11-19

복 음 루카 7,11-17.

입 당 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니다.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박정근 테오디모 신부 | 효자본당 주임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식이 한 명이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홀아비나 과부에게 자식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전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과부에게 유일한 삶의 희망인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가없는 마음”이 드셨다고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살려주는 이유를 오늘 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없는 마음이 드실 때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병자를 고쳐주셨고(마태 14,14),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부채도 탕감해 주시고(마태 18,27),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시고(루카 10,33), 가없는 마음이 드시어 탕자를 받아주시는 예수님(루카 15,20)이심을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곤경을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자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을 위로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내 삶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실 것입니다.

“가없는 자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셨다.”(시편 34,6) 아멘. **말씀**

2016년 환경의 날 주교회의 담화문(요약)

지구는 우리가 돌봐야 하는 ‘공동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 지구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선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5년 6월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적 위기에 대한 우리의 깊은 책임과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과도한 물질주의적 경제와 생활양식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깊이 성찰하시고, 지구의 미래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와 부의 분배에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11월 기후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까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파리협정의 전문에는 그동안 우리 가톨릭교회가 촉구해온 지구가 함께 사는 길을 위한 올바른 사상과 정신을 담고 있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도 세계의 일원으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수도권 대기 상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 먼지의 50% 이상이 경유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배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로교통 수요관리와 함께 경유차에 대한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보듯이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또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앞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의 생태적 회심을 촉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인 지구를 돌보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016년 6월 5일 환경의 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남편이 변했어요!

송윤점 베로니카 | 상모성당

친정어머니께서 신자였던 터라 어릴 적부터 막연히 나도 언젠가는 성당에 다녀야겠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만난 친구가 식사 전 기도를 하는데 참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당에 가서 교리를 받고 2003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신앙심도 없이 그저 주일미사만 왔다 갔다 하다가 흥미를 잃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냉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남편과의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불화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둘 중 하나는 죽겠구나 싶어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애들 셋을 데리고 회사를 다니며 참으로 가혹한 세월들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정신과 치료에 약까지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성당에 가자, 가서 기도하자.”하시는데 “엄마, 내가 세례까지 받아놓고 내 멋대로 살아서 하느님께서 벌주시나봐.”하고선 엄마 품에 안겨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신부님을 만나 면담을 하고 다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위로 두 아이가 첫영성체 교리를 하게 되어 저도 1년 동안 부모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애들 아빠와도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강론 중에 성당 일에 적극적이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던 어느 노부부가 부부간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부활을 맞아 서로에게 세족례를 해주라는 숙제를 냈더니 용기를 낸 부인이 남편의 발을 씻겨 주면서 두 부부는 30년간의 앙금을 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남편을 집으로 불러 발을 씻겨 주었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힘들어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보기로 하고 저희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주일학교에서 교리교사도 하며 거의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의 첫영성체 때, 아들이 처음 복사를 서던 날, 부활, 성탄대축일 때마다 저는 남편을 성당으로 초대했고 남편은 멋쩍어 하면서도 ‘애들 때문에...’ 라면서 비록 일년에 몇 번이지만 미사도 함께 참례했습니다. 저와 세 아이만 성당을 다닌지 8년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아침, 미사참례를 위해 아이들과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외쳤지만, “그럼, 같이 가도 되지. 빨리 가요!”하고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 날 미사를 함께 드리게 되었고, 수많은 교우 분들의 인사와 환영과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로니카, 좋겠다.” “그러게요, 너무 좋아요!” 남편은 그 말이 참 듣기 좋았나 봅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짝교우 교리반에 들어가 열심히 교리공부 중입니다. 집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식사 전에는 함께 성호경을 그으며 조금씩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우려와는 달리, 주일 미사와 교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에 매일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5월 14일 세례를 받고 다음날 첫영성체를 합니다. 지금도 가끔 다들 때가 있긴 하지만,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며 주일마다 영성체를 하고 기도 드리는 덕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면서 살아가는 잉꼬부부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사 참례를 하는 이 멋진 상황을 만들어주심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잘 하게 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

열두 사도 이야기

“와서 보시오” (요한 1,46)

필립보 사도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사도와 같은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의 필립보 사도는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별다른 내용 없이 열두 사도의 명단이 언급될 때 이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마태 10,3; 마르 3,18; 루카 6,14; 사도 1,13) 그러나 요한 복음서에는 그분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신 다음날 필립보 성인을 만나시고는 “나를 따라라”(요한 1,43) 하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성인께서는 나타나엘(공관복음에서는 바르톨로메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분을 보았다는 필립보 성인의 말에 나타나엘은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하자 다시 성인께서는 “와서 보시오.”(요한 1,46)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알고 싶다고 물었을 때 “와서 보아라”(요한 1,39) 하신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필립보 성인을 시험해 보시려고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하고 물으시자 성인께서는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합니다.(요한 6,5~7)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필립보 성인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하자 성인께서는 안드레아 사도에게 이 말을 전하고 다시 그분과 함께 예수님께 전합니다.(요한 12,21~22)

마지막으로 필립보 성인께서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서는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라고 질책하시기도 합니다.(요한 14,8~9)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못해 깨우침을 받은 하셨지만 성령 강림 후에는 사도단의 일원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진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고대 유라시아(스키타이)지방에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그리스에서도 선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터키에 속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87세 무렵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유해는 콘스탄티노플(오늘날 이스탄불)로 이장됐다가 다시 로마의 열두 사도 성당에 모셔졌습니다.

그리스에는 성인의 이름을 붙인 도시도 있었는데 바오로 서간의 하나인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곳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필립보 사도는 포목업자와 모자 제조업자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필립보**



필리피노리피_성필립보의 십자가형

■ 2016년 청소년 주일 행사



사진제공 : 월간 <빛>

2016 청소년을 위한 자비의 희년과 청소년 주일 행사 미사가 5월 29일(일) 오후 3시 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대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 대구주보 2000호 기념 전시회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는 5월 30일(월) 오전 10시 대구주보 2000호 기념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전시물들을 둘러보았다. 전시회는 6월 10일(금)까지 교구청 내 안익사에서 열린다.



장신호(요한 보스코) 신부 대구대교구 보좌주교로 서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6년 5월 31일(화) 오후 7시(로마 시각 낮 12시), 대구대교구 장신호 요한 보스코 신부를 대구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하셨다고 주한 교황대사관이 발표했다.

1998년 8월 25일 사제로 서품된 신임 장 주교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교황청립 '사도들의 모후' 대학을 거쳐 교황청립 성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구대교구 봉덕 본당 보좌신부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주교회의 사무처 소속 전례서 편찬 담당 신부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총무를 맡아 왔다.

대구대교구에 새로운 보좌주교님께서서 탄생하셨습니다.
새 보좌주교님을 위해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박성규 엘리시오



미 사 안 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6월 6일(월) 10:30 범어대성전 소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6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6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6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6월 8일(수) 19:30 교구청 별관 302호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6.12(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루카수녀, (010)9319-1690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6.12(일) 14:00

장소: 가톨릭 근로자 회관 정당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여성

문의: (010)5033-9302

<http://columban.to>

대구성령봉사회 일일 피정

일시: 6.18(토) 14:00~17:00

장소: 평리동 성령봉사회관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7.29(금) 14:00~31(일) 17: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천호성지 주말 영성 피정

기간: 6.10(금)~12(일)

장소: 천호성지 피정의집

주제: 거룩한 독서 피정

지도: 정태현 신부(한남성서연구소)

문의: (063)263-1004~5

예수회 7월 성소식별 피정

기간: 7.8(금)~10(일)

주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신청: 예수회성소실, (010)6245-1608

<http://vocation.jesuits.kr>

제주도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6.15~17 / 6.20~23 / 7.1~4

7.19~22 / 7.25~28 / 8.1~3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바오로딸 행복한 책읽기

일시: 6.10(금) 14:00~17:00

장소: 바오로딸서원 2층 교육장

내용: 자아성숙과 인간관계 발전

대상: 40~60대 / 10주간

신청: 권마리아 수녀, (010)9064-5013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6.25(토), 동부유럽 성지순례

경비: 385만원(10박 11일)

일시: 7.16(토), 성모님 발현지

경비: 42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tour.org

35차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23(토)~31(일) 8박 9일

주관: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010)5607-2046

<http://www.terrasanta.kr>

27차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청소년 및 가족(1차 7.19

2차 7.23), 대학생(6.25)

문의: 593-1273

제48차 영국·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목)~8.11(목)

대·일반: 6.26(일)~8.7(일)

세계 학생들과 함께 연수

초·중·고_기숙사 / 대·일반_홈스테이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7월 여름 캠프

기간: 7.17(일)~8.7(일) 22일

대상: 초4~중3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선착순 30명)

<http://oakinternational.co.kr>

성모발현성지순례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출발일: 2016년 8월 29일 (13박 14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레(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열/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 사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 성 철(비오)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32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치질수술 내시경 건강검진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임원실

www.hangmuns.com

노성균

959-7175

대우파트 4F

대우은행

대우은행

대우은행

대우은행

대우은행

대우은행

대우은행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진단·렌즈삽입술·노안수술·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터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대우은행

부고



최기산(보니파시오) 주교 선종

인천교구 제2대 교구장이신 최기산(보니파시오) 주교님께서 지난 5월 30일(월)에 선종하셨습니다. 장례미사는 6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사 | 모임

제3회 초등교원 신앙대회

일시: 6.25(토) 10:00~16:3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문의: 교구 학교복음화담당, 250-3037

교육 | 모집

32기 성모 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야간)

기간: 6.16~7.14(매주 목, 19:00~22:30)
32기는 야간 기수로 진행합니다
장소: 수성성당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제7차 교구 청년국 비다누에바 연수

기간: 7.1(금)~3(일), 꾸르실료교육관
문의: 정혜진, (010)4527-0400
<http://cafe.daum.net/daeguvida>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_꿈트리 모집

대상: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위치: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번 출구
문의: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010)9177-6858 / www.cumtree.or.kr

6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특강

일시: 6.11(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성녀 데레사의 영성에 따른 기도생활 / 강사: 윤주현(베네딕도)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가곡·성가, 통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오카리나, 바이올린, 성인생활영어회화, 성가반주법, 동화구연·시낭송지도자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 텃밭·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 1호선 교대역)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미혼모자시설 가톨릭푸름터 입소 모집

미혼의 임신부·출산 6개월 미만의 도움이 필요한 여성(무료 시설)
주거·의료, 출산, 사회복지지원 등 전화, 인터넷, 내방상담 가능(황금동)
문의: 764-8537 / www.ggum1004.com

대가대 평생교육원 여름학기 모집

모집: 6.17(금) / 문의: 660-5554~7
학점은(행·사회복지학·아동학·실습포함) 음악원(4·6·8주과정, 1:1레슨) 취미·교양 / 전문가 / 자격증과정
홈페이지: <http://conedu.cu.ac.kr>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손종일(라우렌시오) 최귀순, 김명숙(아네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삼성화학건설
ISO 9001 인증

방수공사 / 페인트칠
신자 10% 할인

대표번호 1577-2279
김원(토마스) 010-5623-9001

개원 30주년
달성피부과

BF PNT 영양치료실/화상·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클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클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민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H. 016-518-2223
010-8345-9479

위원장 이주석 요셉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홍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 R I 예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